

실업뉴스

The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News
2019년 9월 25일 수요일 제785호



정기총회 소집 공고

- 일시: 2019년 10월 16일(수) 오후 1시
- 장소: 협회 회의실
- 주요 안건 - 예.결산 보고 및 승인,
내 / 외부 감사 보고
- 26대 정.부회장 인준
- 이사 6인, 감사 3인 인준(선출)

*정.부회장 인준 및 이사/감사 선출 투표가 실시되기 때문에 투표권을 행사할 정회원은 정기 총 회장 입장 시 **체납 회비를 완납**하셔야 합니다. 회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전부착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표지사진〉
2018년 제1차 정기총회(10월 31일)



www.okba.net Publisher : Jae Gyun Shin / Publication Mail Agreement No : 41140510
Return Undeliverable Canadian Address to :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169 The West Mall, Etobicoke, ON. M9C 1C2 Tel.(416)789-7891 Fax.(416)789-7834

PRO-LINE

POINTSPREAD



PRO-LINE

PROPS

빅 히트, 통큰 상품 그리고 더욱더 큰 당첨금!

미식축구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가을에는 빅 리그가 시작되면서 여러분의 매장은 더욱 바빠집니다. 지난해의 경우, 미식축구 한 종목에서만 소매업자에게 지급된 수수료가 약 **\$380만**에 이르렀습니다!

루칸의 트로이 씨는 POOLS 게임에서 Football Pools Card #87 로 \$561,303을 땀습니다. 그는 루칸의 메인스트리트에 있는 Lucan Convenience 에서 이 복권을 구매했습니다.

그는 경기를 시청하고 휴대폰의 OLG 복권 앱(Lottery App)으로 복권의 당첨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화면에 뜬 것을 믿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꺾다가 다시 확인했죠.” 그가 웃으며 말합니다.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요!”



스포츠 베팅 한도

OLG의 스포츠 베팅 한도는 소매업자당, 스포츠 복권 상품당, 고객당 (또는 단체고객 당) 1일 \$100 이라는 것을 유념하십시오. 이 정책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스포츠 복권 판매 정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복권단말기 운영이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소매업자정책매뉴얼(Retailer Policy Manual) 제4.13절 스포츠 베팅 한도(Sports Wagering Limits)를 참고하십시오.

OLG는 DART(Data Analytics and Retrieval Technology) 시스템을 사용하여 복권단말기의 활동을 실시간으로

감시합니다. 이 신속한 모니터링 및 보고 능력은 저희 OLG가 위반 행위가 발생하고 있을 수 있는 소매점을 직접 방문할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OLG는 스포츠 복권 상품 거래를 매일 감시하며, 베팅 한도가 초과될 경우 즉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장의 복권 담당 종업원이 이 정책을 숙지하고 절대적으로 준수하도록 하십시오.


Play. Smart
Knowledge you can bet on.



 Ontario's
Lottery &
Gaming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 OKBA 회 장 : 신재균 (Jae Gyun Shin)
OKBA 부회장 : 송명현 (Myeong-Hyeon Song)
- 사업개발팀 : 이주녕 (Brian Lee) brianjn1108@okba.net
- 홍보팀 : 실장 김광일 (Ted Kim) tongilisysj@yahoo.com
- 디자인팀 : 현미영 (Mimi Hyun) mimihyun@okba.net
- 회계팀 : 김세환 (Justin Kim) accounting@okba.net
- 본부협회 : Tel (416) 789 - 7891 / Fax (416) 789 - 7834

- 이사회 : 이사장 이두승 / 부이사장 신영하
- 감사위원회 : 박영하 / 송구영 / 이만석
- 분과위원회 : 장학 분과 / 회칙 분과 / 특별사업 분과
상벌분과 / 선거관리 분과
- 지구협회 : < 광역 토론토 지구협의회 >
(ABC 순) Etobicoke 회장 이두승 (416)895-1277
Newmarket 회장 금동진 (905)836-6429
North York 회장 방성덕 (416)221-7091
Peel 회장 이수봉 (905)813-1333
Richmond Hill 회장 김대용 (905)471-8079
Scarborough 회장 엄종호 (416)759-4503
Toronto East 회장 김종범 (416)363-9404
Toronto West 회장 김재숙 (416)975-0365
Weston & York 회장 조용상 (416)604-3116
< 남서부 지구협의회 >
Brant County 회장 김종학 (519)756-0099
Halton & Hamilton 회장 오재근 (905)825-8373
London 회장 오세경 (519)432-6672
Niagara Falls 회장 김흥기 (905)354-1313
Waterloo 회장 최상경 (519)579-8130
Windsor 회장 윤문성 (519)326-1832
< 동북부 지구 협의회 >
Durham 회장 이현식 (905)579-2500
Huronian 회장 배종민 (705)436-2248
Kingston 회장 이강정 (613)967-9998
Owen Sound 회장 허창훈 (519)323-4311
Peterborough 회장 이경석 (905)373-0569

K.B.A. 협동조합

- K.B.A. 운영 이사장 : 신영하 (Youngha Shin)
K.B.A. 부이사장 : 심기호 (Kenny Shim)
 - K.B.A. 총괄부장 : 권혁선 (Hyuk Sun Kwon)
 - K.B.A. 사무장 : 배 줄리아 (Julia Bae)
 - K.B.A. 협동조합 사무실 : Tel (416) 789 - 7544
Fax (416) 789 - 5013
 - K.B.A. 협동조합 매장 : Tel (416) 867 - 1444
-
- K.B.A. 운영이사 : 김대영 (Dae-Young Kim)
(가나다 순) 송명현 (Myeonghyeon Song)
신재균 (Jae Gyun Shin)
이두승 (Doo-Seung Lee)
이만석 (Man Suk Lee)
허창훈 (Chang-Hoon Huh)
 - K.B.A. 감사 : 백사열 (Sah-Yeal Paik)
(가나다 순) 장해민 (Hae Min Jang)



www.okba.net

온라인을 통해 더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C O N T E N T S

04 - 05 / LCBO 간이판매소 302개 후보지 추가

06 - 08 / 편의점 사라지는 밴쿠버
평범한 담뱃갑 견본

09 / LCBO영업권 획득 회원을 위한 공지사항

10 - 11 / 美, 담배구입 연령 21세 상향 러쉬
예.결산 정기이사회 / 정기총회 일정 공고

12 / 美, 흡연자 72% 베이퍼 경험 있어
英 JTI 불법담배 취급 업소 지원 독

13 / 모국, 기발한 전자담배 판촉 광고

14 - 15 / 美, 전자담배 업계, 향가미담배로 바짝 긴장

16 / 이사 / 감사 후보 등록 공고
초콜렛 매출의 변함없는 증가

17 /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이사 / 감사 입후보 등록 신청서

18 / RABBA 회장 스타 기고문

19 / DIRECTORY

20 ~ 23 / K.B.A. 협동조합 9월 스페셜

LCBO 간이판매소 302개 후보지 추가

신청 마감 10월 8일까지, 이메일로만 가능

지난 6월에 재무부(산하 LCBO)가 LCBO간이판매소(LCO ; LCBO Convenience Outlet) 후보지 200 곳을 발표한지 약 3개월이 지난 9월 10일(화) 302개 후보지를 추가로 발표했다.

기 발표한 200개 후보지의 신청자들에게 대한 심사와 선별 작업이 끝나고 현재 일부 회원 업소는 오픈해서 술판매를 하는 중에 있거나 곧 오픈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런 와중에 302개 후보지역이 재차 발표돼 회원을 비롯한 편의점 업계가 기대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이번 대상 지역도 GTA가 아닌 남서부나 동북부 등 외곽 중심이다. 302개 지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부는 지난번의 200개 지역 명단이 재차 등장한 경우도 발견되기도 한다.

신청 조건의 일부가 신경쓰이는 대목이 있는데 일단 신청 조건에서 7가지 충족 사항부터 알아본다.

〈신청 조건〉

1. 현재 소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소비자에게 다양한 소비재를 판매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주력 업종이 통념상 약국이거나 식당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2. 자신의 업소가 부록 A 'Community Locations' 302개 명단의 교차로를 중심으로 하여 반경 5킬로 미터 이내에 소재해야 한다. (*LCBO웹사이트에 공지되고 있음.)
3. 상기 2번을 충족시킨 후에 이 거리 범위 내에 LCBO 스토어가 없어야 한다.
4. 상기 2번을 충족시킨 후에 이 거리 범위 내에 비어스토어(The Beer Store)가 없어야 한다.



▲ 온타리오 그레이 카운티 소재 한 편의점이 지난 6월에 발표한 LCBO간이판매소 LCO에 선정돼 이를 알리는 광고판을 업소 앞에 세운 모습이다.

5. 향후 운영코자 하는 LCO 비즈니스 공간이 현재의 전체 비즈니스 공간에서 50%이하를 차지해야 한다. (*50%를 초과하지 못한다.)

6. 진열 공간(선반)의 전체 면적의 길이의 합이 최소 80피트 이상이어야 하며 계절 특수(特需) 대비한 여분의 4 x 4피트 공간이 추가될 수 있어야 한다.

7. 별도의 공간에 빈병 수거를 위한 최소 100평방피트의 공간이 마련될 수 있어야 한다.

이상이 모두 충족시켜야 할 7가지 조건이며 대부분이 지난 6월 발표때의 기준과 같다. 그러나 문제는 지난번과 달리 3번과 4번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는 것이다. 6월달에는 LCBO가 알아서 반경 5킬로 이내 LCBO 및 비어스토어 업소가 없도록 지역을 선정했으나 이번에는 신청자가 스스로 이를 확인해야 한다. 과연 자신의 업소, 그것도 정부가 발표한 명단의 지역 교차로 지점을 기준으로 5킬로 이내에 이들 LCBO나 비어스토어가 없는 경우가 어느 정도나 될 것인지 미지수다. 여하튼 이런 기준이 모두 충족된다면 일단 신청서 제출이 가능하다.

지금
전화주세요!





박효진(Roland Park)

Cell.416-985-5287

Main : 905-770-8828
Fax : 905-770-8851
roland.park@brokerteam.ca

실협 단체보험

신청서 제출에서부터 허가가 나오기까지의 일정은 다음 표와 같다.

<추진일정>

질문과 응답	9월 24일(수)까지 종료
신청서 접수 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월 8일(화) 오후 2시까지 (동부시간 EST기준) ● 접수는 이메일로만 가능 lcbosubmissions@lcbo.com *다만 신청서 접수를 이메일로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 접수 마감일 전에 전화 문의는 가능함.
현장 실사	11월 중
허가 발부	12월부터 시작

<주의사항>

-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메일로만 신청서 접수가 가능하며 파일 용량이 50 MB를 초과할 수 없다.
- 신청자는 이메일 제목란에 지역명(Community Name)과 지역고유번호(Location Number)를 기입해야 하는데 이에 관한 정보는 앞에서 말한 302개 지역 목록인 Appendix A 'Community Locations'에 나와 있다. 이 자료는 <http://www.doingbusinesswithlcbo.com>

[com/sdre/AgencyStores/LCOApplicationInformationWave2.shtml](http://www.lcbo.com/com/sdre/AgencyStores/LCOApplicationInformationWave2.shtml)에 들어가면 된다. LCBO사이트 www.lcbo.com → Doing Business with LCBO (*초기화면 하단 우측 SITES란에 있음) → 그림 아이콘 LCBO Convenience Outlets 클릭 → Apply for an LCBO Convenience Outlet Authorization 클릭을 통해 접근할 수도 있다.

- 접수된 신청서는 접수확인을 알리는 자동 이메일 답신이 발송된다. 만약 접수시켰음에도 자동 답신이 오지 않으면 전화 문의를 해야 한다.

<신청서 작성 요령>

위에 소개한 LCBO 웹사이트에 가면 Appendix B - Application Form, Appendix C - Personal History Form 가 있다. 이 두개의 양식을 작성하는데 6월달 발표했던 200개 명단 때와 동일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이트에서 직접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편하게 개선됐다. 잘못 기재하면 컴퓨터에서 작성하기 때문에 쉽게 정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성 요령은 실험뉴스 778호 (6월 19일자)에 자세히 소개 돼 있고 실험 웹사이트 www.okba.net 의 공지사항 『LCBO 간이판매소(LCO) 신청서류 작성 지침』 (일련번호 412)을 참고해도 된다.

한가지만 주의토록 한다. 양식 첫 페이지 상단에 가장 첫번째로 기재할 정보가 R.F.P.No라는 것인데 이는 '2019-061'이다. Appendix C - Personal History Form도 마찬가지로 이 번호를 기재한다. ■

일체형 연동 포스시스템

원슬루션과 함께하면 빠르고, 간편하고, 저렴합니다!

LCBO READY!!

- ALL LOTTERY TICKET SCAN
- DEBIT MACHINE 연동

1SOLUTIONS
DATA CORPORATION



Debit & ATM and POS system

아직 해가 뜨려면 30분을 더 기다려야 하지만 해리 마(Harry Mah)씨는 참치 통조림과 마요네즈 쌓아놓은 사이에서 입담을 늘어놓는다. 단골 손님들이 이른 아침부터 마씨 가게에 모여 짙은 커피를 마시며 세 상 돌아 가는 온갖 주제를 놓고 논쟁을 벌이기까지 한다. 예를 들어 건강에 커피가 더 좋은가 차가 더 좋은가? 따위도 논쟁거리다.

이런 장면은 밴쿠버에서 과거에는 흔하다 흔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재산세가 자꾸만 오르면서 많은 독립 편의점이나 식품점이 폐업으로 내몰려왔다. 예를 들어 2008년에 편의점으로 영업 등록을 한 302개의 업소는 10년이 지난 2018년에 226개가 남아 있다. 76개가 그 사이에 사라진 것이다.

마씨가 운영하는 업소 '맥길 그로서리'(McGill Grocery)를 새벽 출근길에 어김없이 들렀다 가는 빅터 젠타일씨는 이런 말을 한다. "편의점 등 스몰비즈니스가 지속적으로 문을 닫으면서 밴쿠버 고유의 어떤 모습이 자꾸 사라지는 느낌이다."

주변 단골 손님들이 항상 거리낌없이 들러 5분이고 10분이고 정담을 나누고 지구촌 뉴스나 스포츠 소식 등 온갖 얘기거리를 교환하는 이상적인 장소가 편의점이었다는 것이다. 해리 마씨 가게도 그런 곳 중의 하나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랑방이나 노인정 같은 곳이었을까. 그런 인간미 넘치는 사교의 장을 밴쿠버에서는 편의점이 안성맞춤으로 제공했다. 하기


치솟는 재산세가 원흉 편의점 사라지는 밴쿠버



▲ 마 사장과 단골 손님이자 친구 빅터가 새벽부터 마주하고 수다를 면다.

밴쿠버 시에서 지난 10년 간 70개 이상의 편의점이 문을 닫았다. 국영 TV CBC가 지난 9월 6일자 뉴스를 통해 보도한 내용인데 원인은 증가하는 재산세 때문이라는 것이다. 재산세 인상은 비즈니스를 자기 건물로 소유로 하든, 세를 들어 하든 지나치게 높을 경우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높은 재산세로 인해 밴쿠버 다운타운에서 그저그런 이발소를 하는 한 업주는 월세를 5,000달러씩 내고 있다. CBC방영 내용을 토대로 실상을 전한다.



아담유 합동 법률그룹

Adam Yoo Stigler Nguyen & Associates

각 분야 전문 변호사와 법무사들이 여러분의 법률 문제를 최선을 다해 해결해 드립니다.

<p>교통사고, 개인 상해</p> <p>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교통 사고 후유증에 관한 최대 보상, 낙상, 정무 과실 보상 소송</p>	<p>교통위반 티켓</p> <p>과속, Stunt Driving, 무보험, 신호 위반, 횡소니 등 모든 교통법규 위반</p>	<p>형법</p> <p>음주 운전, 폭행, 절도, 사기, 마약(Drug) 보석(Bail) 등 모든 형법 위반</p>
---	--	---

- * 형법
- * 소액재판
- * 복권 판매법


- * 가정법
- * 세권, 세입자 분쟁
- * 담배 판매법

- * 민사소송
- * 주류 판매법
- * 회사 설립

* O.D.S.P. 신청(Ontario Disability Support Program)
1년 이상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시 청구 가능.

**“강력한 실력, 오랜 경력, 섬세함으로
모든 법률 문제 해결”**

변호사 : Leonard Stigler, Mai Nguyen, Shiv Passi
법무사 : Adam K. H. Yoo, David Song, Mark Ginz
Kate N. Han, Hassanein Bhaloo,
Earl Francis Dacara



T : 416.739.8887 / 647.891.8867 / F : 416.739.7559
1018 Finch Avenue West, Suite #100, Toronto

사 이런 풍경이 토론토라고 달랠것는가 마는...

가족운영 체제

마씨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소는 그의 모친이 지난 1977년에 매입한 것이다. 건물인데 주차장도 크고 인근에 방 3개 살림집도 있어서 마씨가 족에게는 넉넉했다. “어머니 세대는 대개가 이민자였기 때문에 자영업할 수 밖에 없는 처지였다. (*영어때문에 취직이 어렵고 편의점같은 소자영업을 택했다는 의미로 우리의 초기 한인 이민자 세대 처지와 똑같다.) “특별한 기술이 있지도 않고 언어도 짧고 그러니 그들은 꽤나 힘든 역경을 안고 시작했다.” 올해 55세인 마씨는 두명의 동생이 있다. 어머니로부터 지난 89년에 가게를 물려받아 3형제가 함께 운영을 하는데 당분간은 계속 할 생각이다. 대충 65세까지는 할 요량이다.

밴쿠버에는 마씨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흔했다. 그러나 그것도 옛말이고 최근에는 매년 수십개씩 편의점이나 식품점들이 문을 닫고 있다. 시당국은 편의점이 보호를 받아야 할 처지임을 인식하고 개발관련 부서가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지대설정(zoning) 구상을 하는 중이다.

돈 안되지만...소일 삼아

플로이드 왕(Floyd Wong)씨는 결코 원하지 않았던 지금의 일거리를 사랑한다. 그의 아내가 17년 전에 지금의 식품점 버논드라이브 그로서리



▲ 은퇴후 천직으로 알고 만족해 하는 왕 사장이 자신의 가게 앞에서 포즈를 취했다.

(Vernon Drive Grocery)를 샀다. 자신은 당시 밴쿠버 교육청 직원이었다. 어느날 느닷없이 아내가 식품점을 산다고 말해서 절대 안된다고 말렸고 한다. 그래도 소용이 없었다고. 교육청에서 은퇴한 후 이제 왕씨는 가게 카운터 뒤에 앉아 일을 본다. 급작스러운 환경의 변화로 쇼킹할 현실이라고까지 표현한다. 그런데 해보니 차츰 적응이 돼 이제는 즐길만하다고 한다. 하지만 돈을 모으지는 못한다. 은퇴 자금을 갉아먹는다. 업소가 문을 연 것은 1904년이었으니 100년이 훌쩍 넘은 전통이다. 팔려고 내놨다. 달리 방안이 없었다고.



onewholesale.ca

Smoke Shop / Headshop / Convenience Store Wholesaler

Authorized Zippo Dealer

원도매상

Order online by noon for **SAMEDAY SHIPPING**

*Ask for Free Zippo Display

BONGS, DAB RIGS, BUBBERS, RECYCLERS, HAND PIPES, E-CIG,
VAPORIZERS, GRINDERS, DUGOUTS, SCALES, SMOKING PAPERS,
ALL KINDS OF SMOKING ACCESSORIES
ZIPPO LIGHTERS, and ETC.

Business Hours

Monday to Friday
9.00am - 5.00pm
Saturday
9.00am - 2.00pm
Closed on
Sunday and Holidays

Cash & Carry Store

606 Magnetic Dr Torono, ON M3J2C4

onetradingltd@gmail.com

T. 416 661 6664 F. 416 661 6668

편의점 전망 있다?

편의점은 지역사회의 사랑방같은 존재다. 향토사학자 존 앳킨씨는 이런 인간적 교류의 공간 활성화를 적극 지지 성원하는 사람이다. 그는 두개의 가장 전형적인 장소를 예로 들었다. 하나는 퀘벡스트리트의 페더럴스토어(Federal Store)이고 또 하나는 키퍼스트리트의 와일더스네일(Wilder Snail)이다. (*두곳 모두 밴쿠버에 소재함)



▲ 편의점에서 변신한 사랑방 공간으로 고객들로 부터 사랑받는 편의점 페더럴스토어(위)와 와일더스네일

앳킨씨 말에 의하면 그저그런 편의점 수준의 가게가 테이블 몇개를 입구 비탈에 차려놓은 사교모임의 훌륭한 공간으로 변신하더라. “업소그 자체로도 비즈니스 측면에서 의미는 있었지만 이웃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이 공간이 바로 인간미를 주고받는 미팅 장소라는 사실이다.”

SFU라는 도시 개발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는 도시 설계가인 앤디 앤씨는 스몰 비즈니스의 변신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됐다고 강조하면서 밴쿠버에서는 높은 재산세때문에 스몰비즈니스 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밴쿠버의 재산세를 감당하려면 밀크를 얼마나 팔아야 하

며 몇센트짜리 캔디를 얼마나 팔아야 가능한 노릇인가?”

맥길 그로서리의 마사장은 아직까지는 장사가 수지를 간신히 맞추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해뜨기 전에 문을 열고는 친구들과 정담이나 나누는 지금의 생활을 만족해한다. 버논드라이브 그로서리의 왕사장은 결코 원치 않았지만 지금은 만족스러운 직업이라고 생각하는데 해가 지면 교대시간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며 즐거워한다. ■

평범한 담뱃갑

건본



▲ 오는 11월 9일부터 현행 디자인으로 된 포장 담배는 제작이 중단되며 제조사들은 평범한 담뱃갑(plain packaging) 규정에 따른 제작을 해야 한다. 회사 로고나 색상 등 여하한 디자인도 활용할 수 없고 무미 건조한 바탕색에 작은 브랜드명, 혐오 그래픽과 경고문구로 도배될된 종류 불문의 똑같은 담뱃갑이 등장하는 것이다. 사진은 임페리얼사가 담뱃갑 포장 통일화에 대비해 제작한 담배의 한 샘플이다.

(주) 하이쿨텍 냉동·히팅

“신속하고 쿨한 서비스를 약속합니다!”
Canada Heating & Cooling Licensed Technician

전문적인 기술자가 뭉쳐 기술 시너지
효과(Synergy Effect)를 극대화 하였습니다



- 업소용 - 냉동, 히팅, 에어컨, 워킹콜러/후리저, 닥트, 케노피
- 가정용 - 냉장고, 히팅, 에어컨, 전기, 배관 외
- 상업용 - 공장, 상가 및 교회 건물관리 (냉난방 시스템 외)
- 세탁전문점 장비 일체 수리
- 자동차어, 수중모터 및 보트엔진 수리 외



HI-COOL TECH
에어컨 설치 문의 환영
김순석 (Peter Kim)

장거리 출장수리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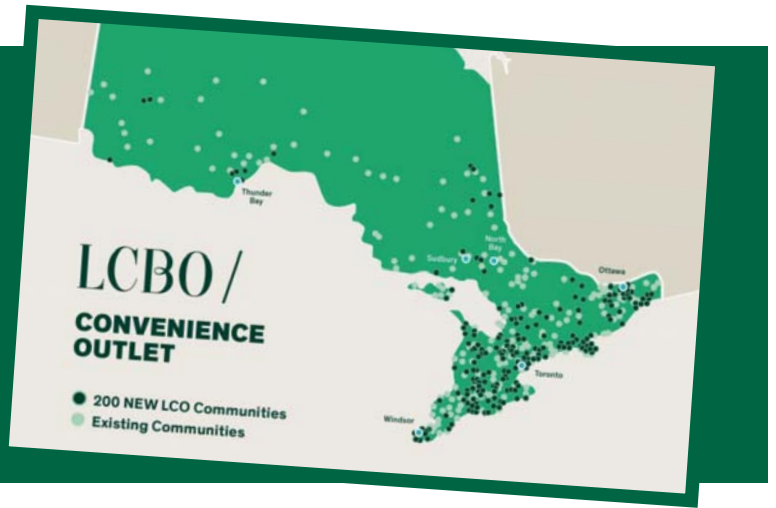
신용과 책임을 우선 합니다

416.909.7114

LCO영업권

획득 회원을 위한

공지사항



LCBO간이판매소(LCO ; LCBO Convenience Outlet) 영업권을 허가받은 회원들에게 알립니다. 지난 6월에 온주주류공사(LCBO)가 외곽 지역 대상으로 200개 지역에 LCBO 간이 판매소를 오픈할 것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추가로 302 곳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미 영업권을 얻은 일부 회원들은 술 판매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또 일부 회원들은 LCBO에서 요구한 조건을 맞추기 위해 분주히 작업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문제는 POS시스템입니다. 일부 기존의 POS시스템은 LCBO에서 요구한 주류판매 전용 카테고리 및 하부 카테고리 세분화 작업을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 협회 주요 사업의 하나인 'OKBA

프로그램 스토어'에 가입한 회원들은 협회가 제공한 POS시스템 하에서 위의 작업이 아무 문제없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협회 직원이 현재 사용 중인 POS시스템에 주류관련 별도의 카테고리를 입력해 주기 때문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프로그램스토어 미 가입 회원으로 주류판매 전용 POS시스템을 추가 구입하여야 한다면 협회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차적으로는 프로그램 스토어에 가입하시고 가입과 동시에 POS시스템이 제공되면서 주류판매 전용 카테고리도 아무 문제없이 입력해서 영업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는 416-789-7891 사업팀 담당 직원을 찾아주세요. ■

DUKE'S

Freshly Crafted Smoked Meats

천연 통째 재료 훈제육

소량의 설탕 사용

얼리지 않은 신선한 돼지고기	천연의 통째 재료	특별한 나무로 실제 훈제	소량 분배 생산 표시

DIRECT TO STORE DELIVERY CONTACT: E: customerservice@metro360.ca | Toll Free: 1-888-639-7868

BIGS

단백질 가득! 맛과 향이 풍부!

시드(SEED) 스낵!

직화구이 | 최고급 점보 씨앗 | 풍부한 맛

DIRECT TO STORE DELIVERY CONTACT: E: customerservice@metro360.ca | Toll Free: 1-888-639-7868

메이저 담배 제조사들도 나서 적극 지지 美, 담배구입 연령 21세 상향 러쉬



▲ 일부 상원의원들이 나서 21세로 담배구입연령을 올리자고 기자 인터뷰까지 하면서 앞장서고 있는 모습이다.

미국의 여러 주와 지자체 등이 담배 구입 최저 연령을 18세 혹은 19세에서 21세로 높여오고 있는데 지난 9월 1일자로 3개 주가 추가로 연령을 상향 조정, 시행에 들어갔다. 해당 주는 아칸소, 텍사스, 버몬트이다. 3개 주 모두 21세로 높였다. 다만 두개 주에서는 몇가지 예외를 인정했는데 아칸소 주의 경우 2020년이 되기 전에 만 19세가 되는 경우와 군인에 한해서는 새 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텍사스 주도 2개의 예외를 뒀다. 현역 군인의 경우 18세 이상이고 군인증을 제시할 경우 담배 구입이 가능하다. 또한 2001년 8월 31일 이전 출생자라면 21세 미만이지만 역시 구입을 허용하고 있다.

한가지 주목할 것으로 텍사스의 경우 이번 연령 상향조정 제도 시행과 아울러 연령체크 시 30세 미만으로 보이는 손님에게 신분증을 제시토록 한 것이다. 캐나다를 포함해 선진국들의 신분증 제시 연령은 대개 “25세 미만으로 보이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30세로 크게 높이고 있다. 미국은 연방법으로 “27세 미만”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세살이나 높은 셈이다. 여담이지만 25세, 27세, 30세가 큰 의미가 있을까 싶다. 외관상 이런 나이로 보인다는 것인데 과연 식별 연령대의 두세살 차이가 효과를 볼 것 인지는 회의적이다.

이들 3개 주 이외에도 올해가 끝나기 전에 4개 주가 21세 제도 도입에 줄을 잇는다. 오는 10월 1일에 동부의 케네디콧과 매릴랜드, 10월 16일에는 오하이오, 11월 13일에는 뉴욕 주가 시행에 들어간다. 서부 워싱턴주

와 유타 주는 2020년에 연령을 높일 계획으로 있다. 참고로 현재 미국에서 18개 주와 워싱턴D.C가 21세 제도를 시행 중에 있고 이를 시행하는 지자체 수는 약 480여 곳으로 집계되고 있다. 일부 금연단체나 공익 기관들은 웹사이트를 통해 연령상향 캠페인(Raising the Tobacco Age to 21)을 열성적으로 벌이기도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합리적인 금연 정책의 일환으로 벌어지는 현상이다.

미국에서 주 차원에서 21세 제도를 도입한 첫 주는 하와이였으며 (2015년) 이듬해인 2016년에 캘리포니아주가 뒤를 이으면서 매년 이 제도가 확산됐다.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한 하와이답게 이 주는 금연 들어 회한한 제도를 추진하고 있어 CNN등 주류 언론의 집중적 관심을 끌었는데 100세 이상만 담배를 구입토록 하자는 정책이다. 주의회에서 수립한 초안을 보면 2020년까지 30세 이상으로 올리고 매년 40세, 50세 등으로 상향 조정해 2024년이 되면 100세 이상만 담배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돼있다.

법안도 발의가 됐다. 다만 외부에서 관광객이 담배를 가지고 하와이를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며 전자담배나 시가는 예외다. 이 과격하고도 코믹한 법안이 통과돼 실제로 시행될 지는 두고볼 일이다.

매우 흥미로운 것은 다국적 메이저 담배 회사들, 그리고 전자담배의 총아인 줄(Juul)사도 각급 정부의 연령 상향 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지난 5월에 레이놀즈 아메리카는 대변인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소매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와 담배구입 최저연령 21세 상향 정책을 적극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 담배 구입 연령대를 해마다 높여 2024년이 되면 100살 이상에게만 담배 구입이 허용되게 한다는 법안을 발의해놓은 하와이. 미 주류 언론이 앞다퉀 이 과격한 정책을 전했다.

그런가 하면 말보로로 유명한 미국 1위 담배 제조사 알트리아 그룹은 청소년 흡연 감소를 위해 이 제도가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고 극찬하기도 했다. 알트리아 그룹은 미국은 물론 캐나다 전역을 휩쓸고 있는 최대의 베이퍼 제조사인 쥬울 지분을 35%나 가지고 있다. 2018년 12월에 통크게 쥬울사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대 주주가 된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한 나라가 앞서가는 담배 정책을 시행하면 동화되는 추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캐나다도 이웃나라에서 시행하는 21세 연령 상향 정책을 도입하지 않을까 편의점 업계 입장에서 다소 우려스럽기도 하다. 그런데 21세 상향 정책에 관한 언급을 한 마당에 왜 하필 21세인지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20세도 아니고, 22세도 아니고 21세인 이유는 그럴 만한 논거가 있다. 몇가지 자료를 보자.

- 성인 흡연자의 거의 모두(94%)가 최초로 담배를 경험하는 시점이 21세가 되기 전이며 18세 이전에 경험하는 비율은 81%이다.
- 18세와 19세의 흡연자들이 그 이하의 연령대가 흡연을 경험할 수 있는 대부분의 공급책이 되고 있다.
(쉽게 말해 16살 먹은 학생이 18살 먹은 형이나 선배를 통해 흡연을 경험한다는 말이며 이런 경우가 다반사다.)
- 고등학생으로 21세의 나이를 먹기는 거의 불가능하고 따라서 21세로 올리면 학생 신분으로 담배를 구입할 수가 없어 전파력에 큰 차단 효과가 있다.
- 호기심으로 담배를 경험하는 나이에서 상용 흡연자가 되는 연령대가 21세를 전후로 급속히 이루어지며 담배 제조사들이 시장 확대를 목표로 하는 연령대가 이에 집중하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 이미 시행하고 있는 알콜구입 최저 연령 21세 상향제가 청소년 술 소비 감소 효과를 확인했고 따라서 음주 운전 사고 건수도 크게 감소하는 등 많은 긍정적 결과를 증명했다. 이와 동일한 효과가 담배에서도 기대된다는 주장이다.
- 21세로 상향될 경우 현재의 미성년자 흡연을 12%까지 감소시킬 수 있고 흡연 연관 질병 건수도 10%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 15~17세 연령의 흡연은 25%, 18~20세 연령의 흡연은 15%까지 각각 낮출 수 있다. 2000년에서 2019년 사이에 태어난 인구의 흡연자 중 약 223,000명의 흡연 관련 사망을 막을 수 있다. ■

예.결산 정기이사회

협회 정관 제7장 제21조 이사회 제1항 및 이사회 내규 제 4조 '회의' 제 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예.결산 정기이사회(4차)를 소집하오니 이사들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 : 2019년 10월 3일(목) 오후 2시
- **장소** : 협회 회의실(169 The West Mall, Etobicoke)
- **안건** : 예.결산 심의, 내/외부 감사 보고 등

정기총회

협회 정관 제3장 제7조 '회의' 제1항 '정기총회' 및 제 3항 '총회소집'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정기총회를 소집하오니 회원들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 : 2019년 10월 16일(수) 오후 1시
- **장소** : 협회 회의실(169 The West Mall, Etobicoke)
- **안건** - 예.결산 보고 및 승인, 내/외부 감사 보고
- 26대 정.부회장 인준
- 이사6인/감사3인 인준(선출)

*정.부회장 인준 및 이사/감사 선출 투표가 실시되기 때문에 투표권을 행사할 정회원은 정기 총회장 입장 시 체납 회비를 완납하셔야 합니다. 회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부착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편의점업계 전문지 CS NEWS가 최근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일반 담배 흡연자의 70%가 전자담배 혹은 베이퍼를 경험한 바 있다고 한다. 캐나다는 구체적 자료가 미흡한데 북미주 흐름이 공통적인 것이 많아 참고할 가치가 있는 자료로 소개한다.

담배 비즈니스가 갖가지 시련에 처해있다. 자연적인 흡연 감소 추세, 정부의 온갖 통제 법령, 법집행의 엄격성 등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의점에서의 일반 담배 위치는 부동의 1위다. 미국은 캐나다보다 그나마 의존도가 약한 편이다. 술판매가 있어서 그렇다. 그렇다 하더라도 평균적인 편의점 매출에서 담배는 28.5%를 차지한다. 여기에 담배 관련 약제사나 유사 담배 제품인 OTP제품이 6.84%를 점유하니 이들을 합하면 35%를 넘긴다. 그런데 최근 수년이 흐르면서 트렌드에 분명한 변화의 신호가 오고 있다. 새로운 니코틴 함유 담배인 베이퍼가 뜨고 있는 것이다.

베이퍼 관련한 몇가지 주목할 통계수치를 살펴보자.

- 미국 편의점 손님 중 담배 구입 손님의 72%가 전자담배 또는 베이퍼를 시연한 바 있다.
- 밀레니얼 세대의 흡연자 중 이 경험을 한 비율은 더 높아서 79%에 달한다. 이는 앞의 평균 72%보다 높으며 X세대의 67%, 베이비 부머의 62%

편의점 담배 구매자 25%는 베이퍼도 동시 애용

美, 흡연자 72% 베이퍼 경험있어



미국 FDA가 일반담배, 시가는 물론 전자담배도 맨솔 등 향이 가미된 제품을 전면 금지시킬 것을 금년 봄에 제한한 바 있다.

의점 담배 구입 손님의 49%, 즉 거의 반수가 이 정책을 모르고 있었다.

- 반면 밀레니얼은 57%가 알고 있고 X세대는 50%가 알고 있었다. 이들의 인식은 37%에 머문 베이비 부머 세대보다는 확실히 정보에 밝은 편이다. ■

보다도 한참 높다.

-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는 손님 5명 중 1명은 (21%)는 전자담배 또는 베이퍼의 경험은 물론 현재까지도 이들을 소비하고 있다.

다음으로 일반 담배 구입 시 구매하는 편의점을 결정짓는 몇가지 요인들을 순위로 살펴본다.

자신이 담배를 주로 사는 구입 편의점을 어떤 기준에 의해 결정했는가 하는 질문인데 복수 응답이다. 1위: 편리한 위치 (57%), 2위 매력있는 가격 (46%), 브랜드 충성도 (38%) 순위였다.

한시적인 특별 판촉은 16%에 지나지 않았다. 다른 요인들에 비해 깜짝 판촉은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이기는 하나 상대적으로 낮은 영향력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타 정보>

- 식품의약청(FDA)가 향이 가미된 전자제품이나 베이핑 제품을 편의점에서 취급하지 못하도록 금지책을 발동하려는 것에 대해 편의점

英 JTI 불법담배 취급 업소 지원 뚝



▲ 담배 뒷벽전시 금지가 시행된 후의 전형적인 영국 편의점 모습. 좌우에 독주들도 전시돼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모습이다. 담배를 가리고 보관하는 담배함도 근사한데 메이저 담배 회사들이 지원해서 설치한 업소가 많다.

영국 JTI가 불법담배와 불법 술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한 버밍햄의 편의점에서 회사측이 무료로 설치해 준 뒷벽 담배함(tobacco gantry)을 제거했다. 9월 초 이야기인데 불법 담배를 취급하다가 적발돼 담배함을 제거한 40번째 업소라고한다.

휠러 스트리트 푸드스토어라는 상호의 이 가게는 이미 올해 4월 술판매 면허를 4주 정지받은 전력이 있다. 경찰의 기습으로 이라크에서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담배 188갑과 장물로 추정되는 독주 5병을 적발했다.

주인 다민더 굴라티씨는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 가게에 없었으며 후에 경찰에서 자기는 모르는 일이며 영국을 떠나는 어떤 손님이 놓고 간 것으로 안다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했다고.

JTI영국의 대외협력 총책 찰리 리드씨는 “불법담배를 취급해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파렴치한 업주”라고 말하면서 “형사 처벌이야 당국이 할 것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이런 업소에 회사측이 지원한 담배함을 제거하고 더 이상의 여하한 지원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핀수 광고 금지 위해 관련법 개정 모국, 기발한 전자담배 판촉 광고



▲ 세계 1위의 다국적 담배 회사 BAT의 쉐련형 전자담배 글로(glo)의 기기(device)만 연상되도록 광고하는 뮤직 비디오.

한국도 이곳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담배제품의 할인, 판촉, 광고를 엄격히 규제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런데 전자담배의 경우 담배 자체는 규제 대상이나 기기(몸통 device)는 담배가 아니라는 이유로 규제에서 제외돼 있다. 이 틈을 파고 요즘 기기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광고가 여러 매체 수단을 이용해 난무하는 실정이다. 정부 입장에서 규제법이 없으니 속수무책. 그래서 결국 기기까지 포함해 광고를 금지토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다양한 형태의 광고 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이 유명 힙합 가수들

등장시킨 뮤직 비디오에서 형형색색의 연기가 쏟아져 나오고 배경에는 전자담배 브랜드 네임이 선명하게 도드라져 보이는 쉐련형 전자담배 글로(glo)광고다. 유튜브에 올라온 이 광고는 1개월 만에 조회수 220만회를 넘겼다. 보건 복지부는 아무 제재할 방법이 없어 고심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우회적으로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전자담배를 마음놓고 광고하는 모습인데 뭐라하면 담배 광고가 아니라고 뉘엿뉘엿할 수 있어 문제”라고 설명했다. 할인판촉도 일반 담배의 경우 마케팅을 할 수 없지만 전자담배의 기기는 얼마든지 가능해서 판촉이 판을 친다. 모 전자담배 공급사의 경우 특정기간을 정해놓고 40% 할인 행사를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 구입자에게는 여기다가 전자담배 몇개를 끼워주기도 하고 시연도 권한다. 또, 자사 홍보를 위한 데이터 모집용으로 설문 조사를 벌이며 멋진 원 상당의 상품권도 제공한다.

마침내 한국 정부는 기기 광고나 판촉도 흡연 조장 행위로 보고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골자는 “전자담배 전용기기(device)를 포함해 모든 담배의 판촉, 광고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어기면 500만 이하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는 벌칙도 담고 있다. 또, 돈을 받고 광고성 체험담이나 후기 등을 소개하는 광고도 불법으로 금지시킨다.

이번 개정안은 9월까지 입법예고를 거치고 정기국회에서 통과해 6개월 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 한다. 그런데 조국(曹國) 법무장관 임명을 놓고 파행 정국이 계속되고 정기국회의 정상적 개최 여부도 불투명한 양상으로 치달아 과연 예정대로 진행될지 지켜볼 일이다. ■

캐나다한인여성회

KCWA 노스옥센터: 5075 Yonge St., Suite 401, North York
KCWA 베더스트-핀치: 540 Finch Ave., W. North York

2019년 10월 프로그램

정부지원 임대주택

- 일시: 10월 4일 (금) 오전10시30분 - 오후12시
- 장소: KCWA 베더스트-핀치 사무실
- 담당: 정착상담원 강영옥 (문의: 416-340-1234)
- 내용: 1. 정부지원 임대주택이란?
2. 노인아파트란?
3. 정부지원 임대주택의 신청자격, 조건 및 신청절차
4. 정부지원 임대주택의 종류와 위치
5. 실비복지 아파트 정보

나를 말하다
- 여성으로 살아가기

- 일시: 10월 10, 17, 24, 31일 (목) / 총 4회기
오전10시 - 오후12시
- 장소: KCWA 베더스트-핀치 사무실
- 담당: 가정상담원 정유연 (문의: 416-340-1234)
- 내용: 1. 인권과 남녀평등
2. 사례나누기
3. 스트레스 관리와 자기 이해
4. 스스로 자립하기: 당당한 여성으로 살아가기

온타리오주 대학/전문대학 입학원서 작성 안내

- 일시: 10월 24일 (목) 오후6시 - 오후8시
- 장소: KCWA 베더스트-핀치 사무실
- 담당: 정착상담원 최성혜 (문의: 416-340-1234)
- 내용: 1. 대학 진학 준비 시기와 요령
2. 원서 작성 및 진행 과정
3. 유용한 사이트: eINFO, ontariocollege.ca
4. OUAC / OCAS 사용하기
5. 신청서 작성의 실제

웰컴 투 캐나다
- 캐나다 시민권시험 준비반

- 일시: 10월 10일, 17일 (목) / 총 2회기
오후6시 - 오후8시
- 장소: KCWA 베더스트-핀치 사무실
- 담당: 정착상담원 박민희 (문의: 416-340-1234)
- 내용: 1. 웰컴 투 캐나다
2. 내가 살고 있는 온타리오 이해하기
3. 캐나다 시민의 권리와 책임
4. 캐나다의 역사, 근현대사, 정부, 사법시스템
5. 캐나다의 상징, 경제, 지리

내가 지키는 노년의 행복

- 일시: 10월 22일, 29일 (화) / 총 2회기
오전10시 - 오후12시
- 장소: KCWA 베더스트-핀치 사무실
- 담당: 가정상담원 김진옥 (문의: 416-340-1234)
- 내용: 1. 노인학대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 바른이해
2. 노인학대 대응방법과 안전계획

혼자하는 영주권카드 갱신

- 일시: 10월 29일 (화) 오후6시 - 오후8시
- 장소: KCWA 베더스트-핀치 사무실
- 담당: 정착상담원 김효원 (문의: 416-340-1234)
- 내용: 1. 영주권카드 거주무 규정
2. 영주권카드 신청 및 갱신 안내
3. 준비서류와 진행
4. 신청서 작성의 실제

주택담보 대출에 관한 모든 것

- 일시: 10월 23일 (수) 오전10시 - 오후12시
- 장소: KCWA 베더스트-핀치 사무실
- 담당: 정착상담원 이선경 (문의: 416-340-1234)
- 내용: 1. 모기지 용어
2. 모기지 신규 및 갱신
3. 모기지 선택: 고정 변동 금리 및 개방-폐쇄형 모기지
4. 최초 주택 구입, 신규 이민자를 위한 모기지
5. 모기지 승인 절차 및 상환

배우자 초청 안내

- 일시: 10월 22일 (화) 오후6시 - 오후8시
- 장소: KCWA 베더스트-핀치 사무실
- 담당: 정착상담원 김효원 (문의: 416-340-1234)
- 내용: 1. 스폰서십의 의미와 자격
2. 배우자 초청 이민 절차
3. 신청서와 구비서류

Funded by: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Financé par: Immigration, Réfugiés et Citoyenneté Canada

美 전자담배 업계, 향가미담배로 바짝 긴장

주정부 금지 조치 러쉬에 트럼프도 무게 실어



▲ 지난 9월 11일에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중 베이핑 제품에 대해 공식적인 최초의 발언을 했다. 국민들이 병들고 미성년자들이 안좋은 영향을 받는 향가미 전자담배를 금지시키자는 내용의 그의 발언은 업계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향가미(flavoured) 전자담배를 금지해 청소년의 접촉을 막고자 하는 노력이 미국에서 열기를 더하고 있다. 50개 주에서 미시건 주가 가장 먼저 추진을 선언했고 이어 뉴욕주가 지난 9월 중순에 두번째로 의향을 내비쳤다. 현재까지 6개 주 정부에서 유사한 반응을 보인 가운데 지난 9월 1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차원의 제재를 시사해 업계가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대부분의 경우 업계와 협업을 위한 로비스트 활동의 초점은 가장 인기 있는 향가미 제품인 민트와 맨슬 담배만은 정부당국이 부디 건드리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모든 향가미 담배를 - 일 반담배든 전자담배든 - 가리지 말고 전면 금지시키자고 열정적으로 외치고 있다. 향이 든 전자담배가 미성년자를 유혹해서 담배에 맞들리게 한다

는 것이다. 트럼프의 최근 발언은 아직 이렇다 할 입장을 개선하지 않고 있는 주정부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한 전자담배 업체는 연방 정부가 금지 조치를 취하면 따르겠다는 반응을 민첩하게 보였다고 한다.

이 업체가 다름아닌 Juul이다. Juul은 트럼프의 발언이 나오자마자 이렇게 성명을 발표했다. “우리는 향가미 제품에 대한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조치의 필요성을 강하게 공감한다. 효율적인 조치라면 FDA의 최종 결정을 충실히 따르겠다.”

그러나 지난 과정을 보면 양상은 지금하고 크게 달랐다. 주 의회에서 의 보이지 않는 전투는 격렬했다. 담배회사들이 고용한 로비스트들은 주 정부의 향가미 제품 금지 조치를 막기 위해 혼신을 다했다. 특히 하와이, 캘리포니아, 뉴멕시코, 메사츄세츠, 뉴욕, 메인, 코네티컷 주에서 그랬다.

그렇게 해서 일부 주의 금지 시도는 실패했거나 교착상태에 있다. 막강한 로비를 뚫고 미시간 주지사가 이번 달에 긴급규제법안(emergency rules)을 발의했고 뒤를 이어 민주당 소속의 뉴욕 주지사 앤드류 쿠오모가 유사한 긴급규제법안을 발의할 의사를 내비친 것은 대단한 용기라 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국회 동의를 필요없이 관철시킬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입법부를 상대로 로비해봐야 별 소용이 없다는 의미다. Juul의 전방위 로비는 대단했다. 백악관, 의회, 식품의약청 등을 상대로 올해 상반기에만 190만 달러를 썼다고 한다.

베이핑 기술개발 협회(The Vapor Technology Association)도 올해 캘리포니아 정부의 향가미 전자담배 금지 도입을 철회시키기 위해 78,000달러를 썼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런가 하면 세계 최대의 담배 회사 중 하나인 알트리아 그룹은 지난 가을 단독으로 로비에 전력투구해 현재 금지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교착상태에 묶어두기에 이르렀다. 이를 위한 로비로는 10만 달러 이상을 썼다. 참고로 알트리아는 Juul사(Juul Labs, Inc.) 지분의 35%를 보유하고 있다.



▲ 미시건 주에 이어 뉴욕주도 쿠오모 주지사의 지난 9월 15일 성명을 통해 향가미 전자담배 전면 금지 정책을 시사했다.

미국 담배회사 랭킹 2위인 레이놀즈 아메리카는 전자담배 뷰즈 알토(Vuse Alto)를 판매하는데 올해 뉴욕 주에서 로비스트 인건비로 240,000달러를 사용했고 이중 최소한 23,000달러는 향가미 전자담배 금지 정책 수립을 막는데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덕에 올해 의회에서 금지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일단 막았다.

알트리아는 올 봄에 메인 주 헌군데서만 금지 입법화를 막기 위해 7만 달러 이상의 돈을 썼는데 소셜미디어와 이메일 등 온라인 수단을 이용한 금지 정책 불합리를 강조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는데 투입된 돈이다. 메인 주는 현재 금지 조치가 없다.

2018년 기준으로 전세계 전자담배 시장 규모는 110억 달러에 이른다. 10대 청소년들의 베이핑 증가는 주로 주울과 같은 액상형 카트리지 향가미 전자담배가 주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주울은 미국 전자담배 시장의 약 3/4를 차지한다. 정부의 금지책과 업계의 반대 로비의 치열한 싸움의 와중에 보건 당국들은 수백건의 호흡기 질환을 조사하고 있다. 모두 전자담배나 베이퍼를 애용했던 사람들의 질병 보고서다. 그런데 많은 경우들이 마리화나와 관련이 있으며 어떤 하나의 요인이라고 꼭 짚어 말하기 어렵다.

향가미 제품 허용을 주장하는 진영은 성인 흡연자가 향가미 전자담배를 대용품으로 해서 금연으로 이어지는데 도움을 받는다는 점을 논거로 내세운다. 반면, 금지를 요구하는 의원들은 흡연을 하지 않는 청소년들이 회사들의 유혹받치는 관측과 포장술로 인해 흡연 습관을 들이게 된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베이퍼기술개발협회(VTA) 토니 아부드 회장 말을 잠시 들어보자. “우리가 발견한 여러 사실 중의 하나는 주의회가 행여라도 언론에서 안좋은 보도가 나오면 과민반응을 보이며 과학적 근거도 없이 향가미된 제품은 무조건 금지시키려는 규정을 만들고 우리는 또 이에 따라 향을 모두 제거해야 한다. ‘불만에 찬 목소리다. 그렇게 저렇게 로비도 하고 싸워서 전자담배 업계는 다른 모든 향들은 제거했지만 민트와 멘솔은 - 이 두 향가미 제품이 가장 인기가 많은데 - 살아남게 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보루도

세간에는 걱정 거리였던 모양이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향가미 금지 목록에 멘솔과 민트까지 포함시키는 발언을 한 것이 불을 당겼다.

작년 11월에 FDA는 향가미 전자담배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를 예고한 바 있었는데 이것이 계기가 돼 연방 의원들이 멘솔과 민트를 포함한 모든 향가미 전자담배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게 됐다. 사실 멘솔과 민트는 일반 담배 흡연자의 금연과도기에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곧이어 FDA가 일반 담배 중 유해해왔던 멘솔 담배까지도 생산 금지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는 그런데 주울사가 망고, 과일, 크림, 오이맛 나는 자사 베이퍼들을 일반 소매업소에서 판매 중단토록 하겠다는 발표가 나오지 이틀 뒤에 나왔다. 회사의 CEO는 이렇게 말했다. “주울은 절대로 미성년자들이 자사 제품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며 FDA가 제기한 우려에 대해 깊은 주의를 기울이는 바이다.”

주울 대변인 테드 경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있기 직전에 이런 말을 했다. “우리 회사는 아동들의 구미를 당기는 캔디, 식품, 드링크를 흉내낸 향을 함유한 여하한 제품들도 모두 금지하는 것을 적극 지지한다.” 그런데 주울이 FDA의 정책을 지지하고 함께 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편의점을 비롯한 소매상에 민트, 멘솔, 담배맛 나는 베이핑 제품을 공급했다.

회사는 또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향가미 자사 제품들을 팔고 있다. 일반 담배나 베이핑을 반대하는 단체들은 멘솔과 민트는 금지에서 예외를 두는 과학적 근거가 하등 없다고 항의해왔다. 그들은 멘솔을 가지고 비윤리적으로 특히 흑인들을 상대로 장사를 집중적으로 해왔고 이들 향은 특히나 담배라고는 모르는 미성년자들에게 큰 유혹으로 작용해서 전자담배 사용을 크게 부추겼다. 향이 가미되면 니코틴의 거친 맛을 순화시키기 때문에 아이들이 쉽사리 흡연 유혹에 빠지게 된다.

전국암협회행동네트워크 메인 지부 대정부 담당 이사 힐러리 쉬나이더 씨는 “담배의 거친 맛을 순화시키는 그 어떠한 것들도 아이들이 유혹에 끌리기 십상인 물건들”이라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민트 향 제품을 금지시키는 것은 정치적으로 꽤나 논쟁거리가 돼왔다. 메인 주에서 편의점 업주들이 격렬한 불만을 터뜨렸다. 민트, 노루발풀향기(wintergreen), 멘솔향 제품을 금지하지는 것은 메인주 편의점 업소에서 판매되는 향가미 제품 전체의 30%를 못파는 것이고 정부 세수(稅收) 3,200만 달러를 정부도 손해보는 것이라는 주장을 들고나왔다. 의원들도 숙고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해서 타협안이 나온 것이 이들 향가미 제품은 살려두자는 것이었다.

메인 주는 담배회사들의 지지를 받으며 법안을 통과시켜 이 제품들이 소매업소에서 계속 팔릴 수 있게 됐다. 법에는 대신 21세 미만의 손님에게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것과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이런 제품을 제공하는 것을 불법화했다.

그레첸 윌트머 주지사가 이끄는 미시건 주정부 관리들은 향가미 전자담배 금지 조치에서 민트와 멘솔 향 제품을 예외로 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들 제품까지 금지함으로써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가장 올바른 방향을 잡게 된다고 강조했다. 미시건은 이 정책 추진으로 회사들과 소송까지 치르는 중인데 정부가 승소할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들을 하고 있다. 베이퍼기술개발협회 아부드 회장은 트럼프의 발언이 나오기 전에 이런 주장을 한 바 있다. “주정부들은 더 많은 조치들을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 ■

이사/감사 후보 등록 공고

오는 10월 16일(수) 정기 총회에서는 이사와 감사 인준 또는 선출이 있습니다. 3개 지구협의회별로 이사 2명과 감사 1명이 할당됩니다. (협회 정관 제 20조 이사회 구성 제 2항에 의거) 후보 희망자는 우측 양식을 기재하시고 사진 부착 후 영주권 또는 시민권 사본 1매를 첨부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양식은 협회 웹사이트 공지사항에서도 다운받아 출력 사용가능합니다.) 제출에 앞서 지구협의회 및 지구협회와 협의를 거칠 것을 권합니다. 할당 인원 초과 시 총회에서 투표로 당락을 결정짓게 되며 미달 시에는 현장 추천으로 충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 후보 등록기간 : 9월 25일(수) - 10월 7일(월)
- 등록 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협회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
- 등록처 : 본부협회 선거관리위원회 (OKBA 169 The West Mall, Etobicoke, ON M9C 1C2)
- 문의 : 416-789-7891

온주한인실업인협회 선거관리위원장 신영하

신제품에 대한
끝없는 호기심

초콜릿 매출의 변함없는 증가

캐나다의 초콜릿 사랑은 각별하다. 늘 먹던 초콜릿을 사기 위해 편의점을 뺄질나게 들락거린다. 그런가 하면 뭔가 새로 나온 제품은 없나 기대감을 가지고 살피기도 한다. 새로운 디자인, 새로운 맛에 관심이 많으니 소비자들의 새로운 트렌드와 전통적인 인기 제품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추는 업주의 지혜가 필요하다.

닐슨 캐나다 자료부터 살펴보자. 2019년 3월을 기준으로 이전 52주(1년)의 편의점 채널에서 이루어진 초콜릿 매출 실적을 보면 2%가 성장한 1.78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중 주목할 품목군으로는 무가당 (sugarless) 초콜릿인데 성장률이 무려 35%였다. 그 뒤를 이어 시즌 특별 제품(발렌타인, 크리스마스 등)이 6% 성장을 보였다.

몇가지 새로운 트렌드를 보면 첫째, 대용량 태블릿 초콜릿 바의 등장을 들 수 있다. 두께는 다소 얇은 편이며 계절 특수(特需)에 더 어울리는 제품이다. 그리고 초콜릿은 단지 계산대 주변에만 있어야 잘 나가는 제품이 아니라 다른 특정 코너에 진열돼 있어도 손님이 찾아가서 발견하는 제품이라는 점도 잊지말 것을 전문가들은 강

조하고 있다. 두번째로는 새로운 실험작에 대한 호기심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제조사도 이를 잘 알아서 신제품 개발에 반영한다. 예를 들면 초콜릿 제조사가 주류 제조사로부터 벤치마킹을 많이 한다는데 술 제조에도 다양한 맛이나 향을 가미한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한수 배운다는 뜻이다.

색상에서도 변화가 일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루비 초콜릿을 들 수 있다. 초콜릿 색깔은 뾰족하다. 화이트, 밀크, 다크 칼러가 대부분인데 여기에 과감한 루비 색상이 등장한 것이다. 2017년 9월에 첫 선을 보이면서 제조사 측은 이렇게 말했다. “초콜릿 만들기 80년 역사에서 가장 커다란 혁신이다.”

킷캣 루비 제품은 천연 루비색상의 코코아에서 추출했기 때문에 색깔이 그런데 소비자들로부터 독특한 향으로 큰 호평을 얻고 있다고 한다. 또 혼합시키는 재료도 점점 더 다양해지면서 선택의 폭이 커지는 것도 주목할 현상이다. 각종 견과류는 기본이고 꽃향기까지 가미되면서 품미를 더하고 있다. ■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175 The West Mall, Etobicoke, Ontario, M9C1C2 Tel: (416) 789-7891 Fax: (416) 789-7834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이사 / 감사 입후보 등록 신청서

※ 본인은 이사(), 감사()에 입후보 합니다.

(반드시 입후보 하는 직위 한 곳에 O 표 해야 합니다.)

성 명	한글	생년 월일	사 진
	영문	회원 번호	
자택주소			
업소명			
사업체 주 소		전화 번호	
편의점 운영 총 연수 ()년 기간 :			
일반 경력			
기 간	근무처		직 위
협회봉사경력			
기 간	소속지구협 또는 본부협회		직 책
자기 소개서 및 공약			
(*본란이 부족하면 별첨 가능)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서 명 _____

“고난의 편의점 업계에 현 정부 술 정책 큰 힘”

RABBA회장 스타 기고문



▲ 릭 라바 회장은 편의점 비어 와인 판매를 허용한 온주 정부의 정책을 적극 환영하면서 곤경에 빠진 편의점 업자들이 험난한 시장에서 경쟁을 치러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사진은 제휴업체 대표와의 기념촬영 모습으로 왼쪽이 회장 릭 라바, 오른쪽은 형제인 잭 라바.)

지난 9월 1일자 토론토 스타 일요판 독자투고란에 편의점 체인 라바 (Rabba Fine Foods) 릭 라바 회장의 특별 기고문이 실렸다. “편의점 술 판매 허용, 경쟁력 높여”(Allowing sale of beer and wine lets convenience stores compete)라는 제하의 글은 온주 정부의 편의점 술판매 허용 정책과 이의 시행을 위한 노고를 치하하는 내용이었다. 많지 않은 양의 글로 모든 편의점 업자들의 입장을 정확히 대변하는 공감넘치는 내용이라 전문을 소개한다.

.....
2012년 동부캐나다편의점협회(ACSA)가 지역단위 프로그램의 하나로 정부 지원하에 편의점의날(Convenience Store Day)을 기념했다. 연례 행사로 자리를 잡아 올해에도 지난 8월 29일 행사를 치렀는데 편의점과 종사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을 인식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행사 기간에 자선을 위한 기금마련을 한다.

편의점 업계의 일이 그리 쉬운 것이 아니다. 하루 긴 시간동안 일년 365일 영업을 한다. 주인이나 종업원 모두 지역사회 이웃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한밤중까지 열심히 일한다. 바쁜 가을 시즌을 대비하며 우리 중 일부는 전기불 켜놓는 것에 대해 걱정을 하기도 한다.(*비싼 전기료 걱정을 의미) 어떤 이들은 인력 재투입과 조정에 관한 토론을 벌이는가 하면 또 일부는 고객에 대한 새로운 서비스와 편의성 제고를 위한 여러 방안들을 논의한다.

주정부는 온타리오 비즈니스와 관련해 편의점 업계가 시장에서 살아남고 진화 발전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편의점의날 행사에서 많은 정치인들이 행사 기념을 위해 직접 업소 현장을 방문한 것을 깊이 환영한 이유이다. 우리는 또한 업소를 방문한 고객들과 종업원들과 일상적 대화를 나누는 것을 즐기며 비어와 와인 판매같은 중요한 관심사들을 허심탄회하게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도 나눴다.

온타리오의 편의점은 현재 다양한 당면 과제로 고충을 겪고 있다. 그 중 몇가지를 보면 높은 임대료와 광열비(utility cost)가 문제이고 높은 신용 카드 수수료도 고통거리다. 역동적인 경제 무대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으려면 편의점이 맥주와 와인을 판매토록 해주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였다. 그래서 우리는 온주 보수당 정부가 허용 정책을 결정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 것이다. 정부는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 편의성, 공정성을 높여 술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키로 한 것이며 술 소매 시스템 전체의 현대화를 단행코자 하는 것이다. 정부가 이미 부총독 재가

까지 얻었으니 9,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이는 전국소매업 협회(RCC)보고서에 나온 자료다. 경제발전을 촉진시키고 온주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며 편의성이 증대된다.

지난 수년에 걸쳐 우리 편의점업계 종사자들은 담배나 복권 판매에 있어서 정직하고 책임성있는 존재임을 입증했다. 마찬가지로 술판매에 있어서도 그럴 것이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술판매는 공중의 신뢰 문제임을 잘 인식하고 있다. 편의점 산업은 식품점을 비롯해 술을 취급하는 모든 소매 채널이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행하면서 요구되는 필수적인 사항들을 충실히 따를 것임을 확신한다.

우리는 선출된 공무원(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이 시간을 가지고 편의점 업계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주고 온타리오 주민들의 요구에도 관심을 가져준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그래서 올해 편의점의 날을 기념하면서 온타리오 전역의 모든 지역 커뮤니티에서 우리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재인식했다. 우리의 비즈니스는 다른 비즈니스와 마찬가지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제고할 기회가 되는 그런 비즈니스여야 한다. 캐나다의 모든 국민은 술 선택에 있어서 보다 폭넓은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

*RABBA Fine Foods

우리가 주변에서 익히 대면하는 편의점 혹은 슈퍼마켓 체인 라바는 1967년 토론토 다운타운에서 아주 작은 식품점이 오픈하면서 시작됐다. 이미 1세대는 끝났고 2세대 릭라바와 잭라바 형제가 운영하는 가족경영체제의 체인회사다. 창업자는 이들의 부친인 잭 라바였으며 그 자신도 처음 가게를 오픈할 당시 캐나다 소매업계에서 오늘날과 같은 위치의 회사로 클 것이라고는 결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라바의 컨셉은 비록 동네 슈퍼이지만 밝고 화려한 이미지에 제너럴 스토어와 풍성한 식품품 가게를 합친 모든 것을 취급하는 것이었다. 오늘날도 이 이미지는 청결하고 환한 모습으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사로잡고 있다. 비록 작은 공간이지만 독립 편의점에 비해 확실히 질서정연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차별화를 드러낸다.

■ KBA 협동조합

169 The West Mall, Etobicoke
(협동조합 사무실) ----- (416) 789-7544
169-175 The West Mall, Etobicoke
(협동조합 웨스트몰지점) -----(416) 867-1444

■ 복권관련

AGCO (복권 판매 라이선스 관련) -----(416) 326-8700
(800) 522-2876
Fax (416) 326-5555
OLG -----(800) 387-0104

■ 음료

Coca Cola Bottling Company ----- (800) 241-2653
Pepsi Bottling Corp. -----(905) 568-7909
(800) 387-8400
Saint Jimmy's Coffee Service ----- (416) 250-9427

■ 우유

SAPUTO(Neilson Dairy) ----- (800) 663-4724

■ 스낵

Frito Lay Canada -----(905) 460-2414
South Cove ----- (905) 829-3666
Conagra Brands Canada ----- (416) 679-4200

■ 샌드위치

Classic group of companies ----- (905) 470-1926
A Biz Gourmet(Shirley 부사장) -----(416) 665-1052

■ Meat Jerky

Great Canadian Meat ----- (905) 666-9395
Conagra -----1- (888) 639-7868

■ 초코렛 / 캔디

Nestle Chocolate -----(800) 500-5634
Mars Canada Inc -----(800) 565-0147
Hershey Canada Inc. ----- (800) 268-1304
Mondelez(Cadbury/Christie) ----- (855) 535-5648
Wrigley Canada -----(416) 442-3298

■ 아이스크림

Nestle Ice Cream ----- (905) 458-3600
Ontario (800) 500-5634

■ ATM / Debit

Touch Cash -----1- (866) 391-3950
Moneris Solutions ----- 1- (877) 789-5335
1Solution -----1- (888) 554-7355

■ 잡지

Metro 360 ----- (416) 285-2050
News Group -----(905) 681-1113

■ 법률관련

변호사 이영동 ----- (905) 272-4339
Best Defence (아담 유) ----- (416) 739-8887

■ 금융 / 회계 / 재정 / 보험

Bank of Canada(위조지폐 관련문의) - (888) 513-8212
신한은행 -----(416) 250-3550
외환은행 -----(416) 222-5200
이방록(회계사) -----(416) 221-2009
박효진(보험중개인)----- (416) 985-5287

■ 언론사

한국일보 -----(416) 787-1111
중앙일보 -----(416) 736-0736
Globe and Mail ----- (800) 387-5400
National Post ----- (416) 383-2500
Toronto Star -----(416) 367-4500
Toronto Sun ----- (800) 668-0786

■ 장비 설치 수리

종합캐쉬레지스터 -----(416) 622-2255
프로캐쉬레지스터 -----(416) 804-4075
Cool Air Cleaning ----- (416) 224-0020
Hi Cool Tech -----(416) 909-7114

■ 광고 미디어 전문 대행 회사

Adapt Media ----- (416) 856-4466

■ 기타

Kocom -----(416) 769-3532
DSC Digital System ----- (416) 255-6549
David Health International ----- (647) 726-1010
허바헬스 ----- (416) 435-5754
365 Wholesale ----- (416) 931-9002
Butterfly Fashion ----- (416) 785-5999
The Best Inventory Service ----- (905) 359-8560
원도매상 ----- (416) 661-6664
DavidWholeSale ----- (416) 419-3751
78 Trading ----- (437) 777-7878
Yeno Trading ----- (647) 967-6561
용역 회사 Tyson Lee ----- (647) 545-0922
Atlantic Prepaid Card ----- (888) 479-7779





Sincere Trading of KBA
West Mall Branch

September

SPECIAL SALE
Sep. 1~30



1.15

1.15

Lassonde

Del Monte 960ml All Flavours Reg.\$1.65 **Spe.\$1.15**
Oasis 960ml All Flavours Reg.\$1.65 **Spe.\$1.15**



3.99

Red Bull

24/250ml Original Only
Reg.\$42.99 **Spe.\$39.99**



1.99

Fiji

24/500ml Reg.\$24.49 **Spe.\$18.99**
12/1L Reg.\$22.29 **Spe.\$16.99**
12/1.5L Reg.\$26.69 **Spe.\$19.99**



1.99

2.39

3.89

McCain

French Fries 900g Reg.\$2.69 **Spe.\$1.99**
Xtra Crispy Fries 650g Reg.\$3.09 **Spe.\$2.49**
Premium Super Fries 650g Reg.\$3.09 **Spe.\$2.49**
Xtra Crisp Seasoned Fries 650g Reg.\$3.09 **Spe.\$2.49**
Deep'n Delicious Cakes 510g Reg.\$4.79 **Spe.\$3.99**
Deep'n Delicious Fruit Pies 680g Reg.\$4.79 **Spe.\$3.99**
Delicious Cream Pies 400g Reg.\$4.79 **Spe.\$3.99**
Pizza Pocket 3pack Reg.\$3.49 **Spe.\$2.49**



3.59

2.79

Sara Lee

Cheese cake 538g Strawberry & Cherry Reg.\$4.99 **Spe.\$3.59**
Oven fresh Pies 1.04kg All Flavours Reg.\$5.29 **Spe.\$3.59**
Pound Cake 304g Reg.\$3.59 **Spe.\$2.79**
Cream Pies 55g - 765g All Flavours Reg.\$6.99 **Spe.\$4.69**



Vidal Candy
1.2kg All Flavours Reg.\$7.49 **Spe.\$6.49**

4¹⁹



C.B Powell
Blue Diamond 170g All flavours Reg.\$6.89 **Spe.\$4.19**
Blue Diamond 12/43g All flavours Reg.\$21.49 **Spe.\$13.99**



1⁹⁹
Kelloggs
Pringles 148g - 156g
All Flavours
Reg.\$2.39 **Spe.\$1.99**



Mondelez
Crispers 175g All Flavours Reg.\$2.15 **Spe.\$1.95**
Triscuit 225g All Flavours Reg.\$2.65 **Spe.\$2.39**

2³⁹



Regal
Dubble Bubble Gumball Machine Reg.\$20.99 **Spe.\$18.59**
D. Bubble Jackpot Gumball Machine Reg.\$25.29 **Spe.\$22.29**
Junior Mints Reg.\$24.99 **Spe.\$23.29**
Junior Caramels Reg.\$24.99 **Spe.\$23.29**

22²⁹

23²⁹



C.B Powell
Stagg Chili 425g
All Flavours Reg.\$2.85
Spe.\$2.55

2⁵⁵



SPAM
Spam Luncheon Meat 340g
All Flavours Reg.\$3.29
Spe.\$3.09

3⁰⁹



Hunts
Hunts Pasta Sauce 680ml
All Flavours Reg.\$1.99
Spe.\$1.19

1¹⁹



Mars
Chocolate Singles 24's
Reg.\$23.99 **Spe.\$19.99**
Chocolate King Size 24's
Reg.\$35.49 **Spe.\$29.99**



Campbells
Campbells Broth 284ml Chicken/Beef/Chicken(Chinese) Reg.\$1.69 **Spe.\$1.39**
Ready to Serve Red and White 540ml All flavours Reg.\$2.49 **Spe.\$1.79**
Chunky Soup 540ml All flavours Reg.\$3.05 **Spe.\$2.15**
Chunky Chili 425g All flavours Reg.\$2.55 **Spe.\$2.29**
Everyday Gourmet 500ml All flavours Reg.\$2.55 **Spe.\$2.25**
Habitant Soup 796ml All flavours Reg.\$2.55 **Spe.\$1.79**
Cup Noodles 55g All flavours Reg.\$13.79 **Spe.\$10.99**
Prego Pasta Sauce 645ml All flavours Reg.\$2.49 **Spe.\$2.29**
Goldfish 180g All flavours Reg.\$2.69 **Spe.\$2.05**



Clover Leaf
Brunswick Seafood Snacks 92g - 100g All Flavours Reg.\$1.55 **Spe.\$1.39**
Value Added Tuna 85g All Flavours Reg.\$1.65 **Spe.\$1.45**
Skipjack Tuna 170g All Kinds Reg.\$1.99 **Spe.\$1.45**
Premium Light Yellow tuna 142g All Kinds Reg.\$2.19 **Spe.\$1.69**
Smoked Oysters 85g Original & Spicy Reg.\$1.85 **Spe.\$1.59**
Smoked Oysters 85g Reg.\$1.85 **Spe.\$1.59**

1⁵⁹

1⁴⁵

1³⁹

1⁶⁹



Bertolli
 Olive Oil 250ml Classico & Extra Light
 Reg.\$3.55 **Spe.\$3.29**
 Olive Oil 250ml Extra Virgin
 Reg.\$3.75 **Spe.\$3.29**
 Olive Oil 500ml Classico & Extra Light
 Reg.\$5.25 **Spe.\$3.99**
 Olive Oil 500ml Extra Virgin
 Reg.\$5.55 **Spe.\$3.99**

4⁹⁵



Redpath
 Sugar 10/2kg
 Reg.\$23.99 **Spe.\$19.99**

19⁹⁹



Billy Bee
 Upside Down Squeeze 375g Reg.\$5.59 **Spe.\$4.59**
 White Bear 375g Reg.\$5.59 **Spe.\$4.59**
 White Squeeze Beehive 500g Reg.\$6.35 **Spe.\$5.35**

4⁵⁹ **5³⁵**



Nestle Purina
 Beneful Dry Dog Food 1.6kg
 All kinds Reg.\$5.59 **Spe.\$4.99**
 Beneful Wet Dog Food 283g
 All kinds Reg.\$2.25 **Spe.\$1.95**

4⁹⁹

1⁹⁵



Smuckers DLM
 PUP-peroni 75g All Flavours Reg.\$1.79 **Spe.\$1.59**
 PUP-peroni 158g All Flavours Reg.\$2.75 **Spe.\$2.45**
 Jerky Treats 170g All Flavours Reg.\$2.75 **Spe.\$2.49**
 Alley Cat 2kg Reg.\$3.69 **Spe.\$3.29**
 Meow Mix Original Choice 500g Reg.\$2.25 **Spe.\$1.89**
 Meow Mix Original Choice 2kg Reg.\$6.49 **Spe.\$5.39**
 Milkbone 113g All Flavours Reg.\$1.85 **Spe.\$1.59**

1⁵⁹

3²⁹

2⁴⁹



Always

Always Ultra Slender w/ Flexi-wings 18's	4.69	3.95
Always Ultra Regular Thin w/ Flexi Wings 10's	3.09	2.95
Always Ultra Overnight w Flexi Wings 14's	4.69	3.95
Always Ultra Regular w/ Flexi Wings 18's	4.69	3.95
Always Thin Ultra Long w/ Flexi wings 16's	4.69	3.95
Always Ultra Regular 22's	4.69	3.95
Always Thin Maxi Regular w/Flexi wings 10's	3.09	2.95
Always Maxi Regular w/Flexi wings 18's	4.69	3.95
Always Maxi Overnight 14's	4.69	3.95
Always Ultra Thin Long w/ Flexi wings 14's	4.69	3.95
Always Ultra Thin Reg 16's	4.69	3.95
Always Ultra Thin Long 20's	4.69	3.95
ALWAYS RADIANT INFINITY REGULAR PADS		
Flexi Wings 12pk	4.69	3.95
Flexi Wings 16pk	4.69	3.95
Reg 64pk	4.69	3.95
ALWAYS THIN/MINCE FLEXI-STYLE		
Pantliners 60's Unscented 60pk	4.69	4.09

Tampax
 Regular 10's Reg.\$16.89 **Spe.\$15.19**
 Super 10's Reg.\$16.89 **Spe.\$15.19**
 Super Plus 10's Reg.\$16.89 **Spe.\$15.19**



15¹⁹



April Soft
19⁴⁹
Cascades
 April Soft Bathroom Tissue 4's Reg.\$21.49 **Spe.\$19.49**
 Fiesta Paper Towel 2'S Reg.\$19.99 **Spe.\$17.99**



West Mall Branch
 169 The West Mall, Etobicoke
 T(416)867-1444 / F(416)789-5013

Business Hours

Mon. 06:30 - 17:00
 Tue. 06:30 - 17:00
 Wed. 06:30 - 17:00
 Thur. 06:30 - 17:00
 Fri. 06:30 - 17:00
 Sat. 06:30 - 16:00
 Sun. 11:00 - 17:00



STAGE 1



BLU ASSORTMENT-PODS STARTER KIT

device, charging cable and
two pods(tobacco & menthol)

소매마진 25%

SPECIAL OFFER

\$17.99

BLU ASSORTMENT-PODS

POD PACKS

available in both 24mg/ml
and 48mg/ml NIC strength

\$12.99 (MSRP)



WARNING:
This product contains nicotine.
Nicotine is an addictive
substance.

WARNING:
This product contains
nicotine. Nicotine is an
addictive substance.

WARNING:
This product contains
nicotine. Nicotine is an
addictive substance.

WARNING:
This product contains
nicotine. Nicotine is an
addictive substance.

WARNING:
This product contains
nicotine. Nicotine is an
addictive substance.

WARNING:
This product contains
nicotine. Nicotine is an
addictive substance.

MYLÉ[®]
Nicotine Delivery System

STARTER KIT

- SWEET TOBACCO
- ICED WATERMELON
- SWEET MANGO
- ICED MINT



STARTER KIT

1 x MYLÉ DEVICE (REILU)
1 x MICRO-USB CHARGER
1 x MYLÉ PODS
1 x MYLÉ USER MANUAL

50 mg/mL
NICOTINE

- SWEET TOBACCO
- ICED WATERMELON
- SWEET MANGO

4 x 0.9 mL Pods

**DANGER
POISON**

19+

19+

19+

19+

19+

19+

19+

19+

19+

19+

19+

19+

19+

19+

19+

**STARTER KIT
SRP
\$35.99**

MYLÉ[®]

Nicotine Delivery System

The Better Vape. Canadian made e-liquid.

**PODS
SRP
\$19.99**

**10 FLAVOURS
AVAILABLE!**



19+ WARNING: This product contains nicotine. Nicotine is an addictive substance. Use of nicotine during pregnancy may harm the fetus. AVERTISSEMENT: Ce produit contient de la nicotine. La nicotine mène à la dépendance. Si elle est utilisée pendant la grossesse, la nicotine peut être nocive pour le fœtus. **WARNING:**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for use by children, persons under legal smoking age, persons with breathing or heart disease, diabetes, high blood pressure or those who suffer from respiratory conditions such as asthma or those who take anti-depressant medications. The product should be used with MYLÉ e-liquid Pods containing nicotine. Nicotine is addictive and can increase your heart rate and blood pressure and may cause dizziness, weakness and headache. Inhalation of this product may aggravate existing respiratory conditions. This is not an eating/smoking product. KEEP OUT OF REACH OF CHILDREN AND PETS. TENIR HORS DE PORTÉE DES ENFANTS ET DES ANIMAUX DE COMPAGNIE.





2019 9.8~10.5

Frito Lay Canada에서는 2019년 9월 8일부터 2019년 10월 5일까지 클럽 골드 회원, 플래티넘 회원, 다이아몬드 회원에게 스페셜을 실시하오니 방문하는 판매 담당자 또는 드라이버에게 문의하세요. 4주 한정기간 동안 프로모션이 있으니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스페셜 상품들은 OKBA프로그램 스토어에도 적용됩니다.

Take Home



Ruffles 2/\$7



Cheetos 2/\$7

2019 9.8~9.28

Single Serve



Lay's / Doritos / Miss Vickie's / Smartfood
2/\$3



- 최소 주문량 \$50
- 다양한 제품 오더 가능 (Single Serve, Take Home, Convenience Food, etc)
- 직접 재고 관리 가능
- 필요할 때마다 주문 가능 (무료 배달/주문 후 이틀안에 배달 완료)
- 충분한 유효기간 (창고에서 직접 포장)
- Single Serve는 Snack to you를 통해 주문 가능합니다.

Online at snackstoyoucanada.ca or Phone 1-866-404-8881

Happiness is simple